



성과 성역할 관련 검사들의 대부분은 여성 또는 남성의 성격특성 및 성역할(gender-role)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성역할(gender-role)이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규정한 기대들의 총체로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그 사회구성원들이 남성과 여성의 분류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기대하는 일련의 행동특성이며 동시에 개인의 행동특성을 규제하는 것이다(Cook, 1985).

성과 성역할의 개념을 다루는 연구들이 증대되면서 여러 종류의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검사들은 성역할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주의(차별주의) 또는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들이 있다.

성역할 특성은 성역할 정체감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성역할 정체감은 성정형화 과정의 결과 각 개인에 의해 성역할 행동이 습득되면서 행동에 나타나게 되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의미한다(정진경, 1990). 이를 측정하는 검사로는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등으로 구분되는 남녀의 성격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검사들이 있다. 이를 대표하는 검사는 BSRI(Bem Sex Role Inventory)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을 재는 검사들은 성인용 BSRI로부터 개발되었는데 청소년의 성역할 척도(Adolescent Sex Role Inventory)와 어린이의 성역할 자아개념 척도(Children's Sex Role Self-Concept Inventory)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희(1988)와 정진경(1990)이 BSRI의 개발과정을 모델로 각각 한국형 성역할 척도(Korean Sex Role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후에 김영희(1995)는 KSRI를 기초로 학령전 아동용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PSC)도 개발하

였다.

성역할 특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성평등(차별)주의 검사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성평등(차별)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은 그 사람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성역할 태도는 여성과 남성의 적절한 역할과 활동에 대한 신념이다.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성평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진다. 한 사람의 성역할 태도는 중성적이라기 보다는 그의 성평등적 또는 성차별적 신념을 반영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평등(차별)주의 검사의 개발은 성역할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성차별 혹은 성평등적인 태도를 밝히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Campbell, Schellenberg & Senn, 1997). 성역할 태도는 사회문화의 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임이 밝혀지고 있다(Berkel, 2004; Dambrot, Papp & Whitmore, 1984; Harris, 1994; Helmreich, Spence, & Gibson, 1982; Loo & Thorpe, 1998; McHugh & Frieze, 1997; Twenge, 1997). 따라서 시대가 변하면서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경향(Helmreich, Spence, & Gibson, 1982; Spence & Helmreich, 1972)에서 점차로 감추어진 성차별의식 또는 성평등의식에 주목하는 연구(Beere, King, & King, 1984; Benson & Vincent, 1980; Campbell et. al., 1997; King & King, 1990, 1997; Osmond & Martin, 1975; Swim & Cohen, 1997)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검사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된 성역할 태도 검사는 Spence와 Helmreich(1972)의 여성에 대한 태도 검사(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WS)이다. 이 검사는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여성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의 직업적, 교육적, 지적인 역할; 여성의 자유와 독립; 데이트 예절; 음주, 육설, 농담; 혼전 성교; 결혼관계와 의무라는 6개 영역의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차로 25 문항과 15문항의 축약 검사들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어 왔다. AWS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성평등 신념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점, 친정효과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문항 내용이 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Beere, 1990).

Osmond와 Martin(1975)의 성역할 태도(Sex Role Attitudes; SRA)검사는 여성과 남성 둘 다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현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같이 포함하는 검사이다. 총 3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SRA는 성역할 태도가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여성과 남성의 가족적 역할, 여성과 남성의 가족 외적 역할,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성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변화로 구분되고 있다.

한편 Brogan과 Kutner(1976)는 성역할 정향(Sex Role Orientation; SRO)검사를 개발하여 성역할 정향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성역할 정향은 '남성과 여성에게 적절한 행동에 대한 표준(규준)적인 개념'이다. Brogan과 Kutner가 말하는 성역할 정향은 SRES나 SRA에서 말하는 성역할 태도와 매우 흡사하나 남녀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배제한 순수히 성역할 규준에 대한 개념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분된다.

Beere, King 그리고 King(1984)은 성역할평등주의 척도(Sex Role Egalitarianism Scale-SRES)를 개발하였다. SRES는 95문항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를 모두 측정하고 있으며

성인의 삶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 역할과 관련된 평등주의에 대한 측정을 시도하였다. Beere 등(1984)은 문항 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결혼, 양육, 직업, 사회, 교육의 5가지 생활영역과 5가지 평등성의 차원을 기준으로 삼았다(King & King, 1997). SRES는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태도를 함께 측정할 수 있고 이전의 검사들보다 명확하고 다양한 내용을 다룬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역할 중심의 평등주의적인 태도만을 다룬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김양희, 이수연, 2002).

점차적으로 현대적인 성차별주의에 대한 검사도구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검사들로는 Benson과 Vincent(1980)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 태도 척도(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Scale-SATWS), Swim과 Cohen(1997)의 구 성차별주의(Old-Fashioned Sexism-OFS) 검사와 현대 성차별주의(Modern Sexism-MS)검사가 있다.

Ashmore, Del Boca 그리고 Bilder(1995)가 개발한 젠더 태도 검사(Gender Attitudes Inventory-GAD)는 성에 관한 태도를 4개 차원 즉, 개인적인 차원, 관계 차원, 문화적 역할 차원, 사회 차원으로 구분하여 다면적으로 다루었다. 이들은 한 개인의 성(gender)에 관련된 태도가 단일한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 주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성역할 태도를 재는 검사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은 AWS로부터 Galambos와 동료들(1985)이 개발한 청소년용 여성에 대한 태도 척도(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가 있다. 12개 문항으로 교육, 스포츠, 데이트에서의 청소년과 청소년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청소년

년의 성역할 태도 검사로는 무의식적 젠더 정체성을 재는 프랭크 그림완성검사(Frank, 1949)와 슬래비-프레이 젠더 개념 검사(Slaby와 Frey, 1975)가 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gender)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그들의 사회 행동, 교육활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igle, 1997).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학령기 전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초등학교 저학년에 정점을 이룬 다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부터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낮아진다고 한다(Signorella, Bigler, & Liben, 1993). 반면 청소년기 동안 성(gender) 차이에 대한 자각이 증진된다(Galambos et. al., 1985)거나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소년기에 가장 높다(Urberg, 1979)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성역할 태도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성역할 태도가 지닌 가변성과 복잡성은 성역할 태도 척도의 지속적인 개발 및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McHugh와 Frieze (1997)는 새 척도의 개발의 이유를 첫째는 오래된 척도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는 다양한 모집단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Bigle(1997)은 기존의 성역할과 관련된 발달심리연구들과 사회심리연구들에서 다른 대상, 다른 형식, 다른 영역을 재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곤란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그는 종단연구나 나이가 다른 집단에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넓은 연령층을 대

상으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에 타당도와 신뢰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Bigle(1997)은 아동의 성 유형화의 측정에 대한 개념적이고 방법론적 쟁점을 살펴보면서 성(gender)과 관련한 연구에서 두 가지 측정 대상, 즉 다른 사람에 대한 성역할 태도와 자신의 성역할 유형으로 구분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 성인이 시인하는 자신을 표상하는 성역할 유형(특성)과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igle, 1997). 즉, 성역할 특성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것은 성평등주의 또는 여성에 대한 태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점이 많은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양희, 이수연, 2002; Archer, 1989; Galambos, Peterson, Richards & Gitelson, 1985; King & King, 1993).

청소년기의 성역할 태도, 나아가 남녀평등의식이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측정할 적절한 검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김양희와 이수연(2002)은 광범위한 영역과 차원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재기 위해 13세에서 18세를 위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를 개발하였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은 성평등 혹은 성차별적인 신념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성(gender) 역할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역할의 구성요소는 성평등주의 내지는 성차별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성역할 관련 의식 검사들이 다양한 측면의 남녀평등의식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여성 또는 남성의 성격 특성 및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현실 세계에서 남녀관계를 맥락으로 나타나는 다양

하고 광범위한 측면의 태도를 측정하는 포괄적인 의식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KGES-A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남녀평등주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능력 및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과 남성의 권한이나 남녀간의 관계에 대한 태도, 성평등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평등주의에 대한 개념은 태도의 3요소를 구성하는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감정적 요소), 차별(행동적 요소)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녀평등주의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이론적 구조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은 KGES-A의 개발 과정에서 중,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구인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영역으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경우 남녀평등한 사람의 사고나 행동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생활영역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성인용 남녀평등의식검사에서는 생활영역 차원과 평등성의 질적인 특성 차원의 매트릭스 개념으로 남녀평등의식 구인을 개념화하였다. 이와 비교해서 청소년의 경우는 삶의 영역이 제한되어 다양한 성차별에 노출될 기회가 부족하고 평등

정책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성의 질과 관련한 문항을 넣기는 하되 별도의 차원으로 설정하지는 않기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녀평등의식 검사에서 평등성의 질적 차원이란 여성과 남성의 능력과 속성에 대한 태도, 사회적인 역할과 관련된 내용, 여성과 남성의 권한 및 권력 관계에 대한 태도, 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전체 검사는 60문항이며 축약검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검사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성역할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시기(Signorella 등, 1993)이며, 청소년기의 시점이 점점 저 연령층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역할 태도 또는 성평등적인 태도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를 초등학생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hild; KGES-AC)로 타당화 하였다. KGES-AC는 아동과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성역할과 관련이 있는 변수로 알려진 자기-존중감과 아동과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기-존중감은 성역할 특성(정체감)과의 관계가 주로 연구되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양성적이었으며 양성성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유성경, 임영선,

2005; 이숙, 최진아, 1991). 한편 Galambos 등 (1985)의 연구에서 여성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소녀들이 더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제시한대로 여성에 대한 태도는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그 정도와 관련성은 다를 것으로 예측되며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GES-AC의 이론적인 구조는 KGES-A의 이론적인 구조와 동일한가?

둘째, KGES-AC의 이론적인 구조는 학교급간에 따라 동일한가?

셋째, 학교급간에 KGES-AC의 생활 차원(하위척도)별 평균차이가 있는가?

넷째, KGES-AC는 성역할 정체감 검사와 변별되는 척도인가?

다섯째, 학교급별에 따라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 각 6개교씩을 표집하였고, 표집된 학교에서 4, 5, 6학년 초등학생 223명(남자 112명, 여자 111), 중학생 368명(남자 196명, 여자 172명) 그리고 고등학생 373명(남자 214명, 여자 159명)으로 총 96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

다. 표집대상의 학교별, 성별 분포는 표1에 제시되었다.

### 도 구

####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초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단축형을 수정하였다. 본 검사는 60문항이지만 초등학생에게는 단축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은 60개 문항의 전체검사에서 양질이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 20개를 뽑아 단축형을 제작하였다. 즉, 문항과 하위 척도간 상관관계가 중간정도(상관계수가 .30-.50)이며 표준편차가 충분히 큰 것, 하위 척도별 요인분석에서 부하량이 높은 것, 그러면서 내용에 중복이 없고 평등성의 질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문항을 각 하위척도별로 5개씩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는 전문가 그룹의 문항검토와 이해도 검사 과정을 거쳐 수정되었다. KGES-A의 이론적 구조는 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 선행 연구나 기존 검사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검사대상이 가진 개념에 의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4개 생활영역의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축약검사는 전체검사와 그 하

표 1. 표본의 구성

	남자	여자	합계
초등학교	112(50.2%)	111(49.8%)	223(100%)
중 학교	196(53.3%)	172(46.7%)	368(100%)
고등학교	214(57.4%)	159(42.6%)	373(100%)
합 계	522(54.1%)	442(45.9%)	964(100%)

위척도의 구조가 동일하며 각각 5문항씩 전체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이 보고한 Cronbach  $\alpha$ 는 .90이었다.

#### 한국형성역할검사 수정(KSRI\_R)

1990년에 정진경이 개발한 한국형성역할검사(KSRI)를 유성경, 임영선(2005)이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정한 한국형성역할검사 수정(KSRI\_R)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역할정체감을 재는 것으로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각각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성경, 임영선(2005)이 보고한 전체 척도 및 하위척도들의 Cronbach  $\alpha$ 는 .78에서 .86이었다.

#### 자기-존중감척도

Rosenberg(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김운정(1999)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중감 즉, 자기존중의 정도와 자기 승인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이고 Cronbach  $\alpha$ 는 .84이다(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 연구절차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를 초등학교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로 타당화 하고자 다음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축약형을 선택하고 이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할 수 있는 검사로 타당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둘째, KGES-A 원척도의 20개 문항을 초등학교 4, 5, 6학년 37명을 대상으로 이해도 검사 등을 통해 이해도를 파악하고 심리학 전공 교수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5명이 함께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수정한 후 3명의 초등학교 4학년에게 이해도 확인과정과 전문가 그룹의 재수정과정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 국문과 전공자에게 수정된 문항과 원척도 문항의 의미가 동일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셋째,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표집된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초, 중, 고등학교 각 6개교에 질문지가 발송되어 담임교사의 지도로 발송된 안내문에 의해 질문지 응답이 이루어졌다.

넷째, 수집된 검사 자료로 신뢰도 검증(Cronbach  $\alpha$ )과 타당도 검증(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학교급간에 따라 KGES-AC가 생활영역 차원별로 평균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 결 과

#### KGES-AC 척도의 기술통계치 및 신뢰도 검증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의 내적일관성 Cronbach  $\alpha$ 는 참여자 전체(N=964)에서 .89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2에 제시된 대로 각 하위척도의 Cronbach  $\alpha$ 는 가정생활 .702, 학교생활 .680, 직업생활 .737, 사회문화생활 .619로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KGES-AC의 문항별 기술통계치 및 내적일관성 Cronbach  $\alpha$  ( $N = 964$ )

하위척도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하위척도 총점간 상관	내적일관성
가정생활	1	3.41	.721	.444	.702
	5	3.22	.800	.466	
	9	3.32	.754	.533	
	13	2.62	.912	.374	
	17	3.35	.733	.501	
학교생활	2	3.25	.747	.335	.680
	6	3.19	.834	.465	
	10	3.24	.801	.503	
	14	3.30	.736	.508	
	18	2.95	.821	.369	
직업생활	3	3.22	.755	.497	.737
	7	2.96	.926	.534	
	11	3.00	.859	.587	
	15	3.25	.813	.474	
	19	2.71	1.048	.434	
사회문화 생활	4	3.15	.859	.338	.619
	8	3.32	.705	.364	
	12	2.94	.794	.389	
	16	2.93	.972	.464	
	20	2.80	.991	.330	

각 하위척도에 포함된 문항의 문항-하위척도 총점간 상관도 모든 문항이 .30이상을 보여 각 하위척도를 측정하기에 양호한 문항으로 밝혀졌다.

타당도 검증

**내용타당도**

**전문가 그룹의 문항 검토:** 전문가 그룹(상담전공교수 2명,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5명)은 아동과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할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성역할 관련 검사를 검토한 후, 한국 실정에 맞는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단축검사를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축형 척도의 20개 문항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해도 검사 실시 및 분석:** KGES-A의 단축검사를 초등학교 4학년(14명), 5학년(13명), 6학년(10명) 37명에게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말뜻을 ‘전혀 모르겠다’, ‘알 듯 말 듯 아리송하다’,



표 3.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단축검사 문항 수정

하위척도	문항번호 및 내용
가정생활	(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다. <b>1. 남자들이 부엌일을 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b> (5)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아내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b>5. 남편과 아내는 집, 땅과 같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b> (9) 설거지나 빨래와 같은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13)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 (17)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b>17. 남편과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b>
학교생활	(2)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b>2.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b> (6) 역사나 정치에 대한 상식을 쌓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중요하다. <b>6.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것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b> (10)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 할 수 있다. (14)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 <b>14.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남자가 되어야 한다.</b> (18) 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학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b>18. 여학생들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b>
직업생활	(3)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b>3. 여자는 중요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b> (7)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b>7. 남자는 가족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b> (11) 차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어울린다. <b>11. 직장에서 심부름은 남자보다 여자가 하는 것이 어울린다.</b> (15) 여자가 판,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b>15. 남자들이 주로 하던 직업(예: 판사, 검사, 경찰, 군인)을 여자가 가지는데 찬성한다.</b> (19) 남자가 여자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b>19.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의 부하로 일하는 것은 좋지 않다.</b>
사회문화 생활	(4) 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b>4. 남자는 야한 이야기를 해도 괜찮지만 여자가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b> (8) 여자는 사귀는 남자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b>8. 여자는 남자 친구보다 더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b> (12) 더 많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16) 여자가 욕설이나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자보다 더 보기 좋지 않다. <b>16. 남자가 욕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여자가 욕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b> (20) 남자는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원척도 문항 : ( )표시

수정된 문항 : 1, 2, 3, 4, 5, 6, 7, 8, 11, 14, 15, 16, 17, 18, 19번

‘말뜻을 정확히 알겠다’ 중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질문지를 훑어보고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국어사전적인 설명을 해준 다음 초등학교생들이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물어 보았다. 문항의 전체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 보았다. ‘말뜻을 정확히 알겠다’가 80%가 넘지 않는 문항은 2번(62%), 3번(73%), 4번(70%), 5번(73%), 6번(73%), 7번(73%), 12번(62%), 14번(73%), 16번(78%), 18번(46%), 19번(70%)이었다. 이들 문항뿐만 아니라 개별질문으로 파악한 답변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 전문가 그룹은 초등학교 4학년의 이해도에 맞추어 문항 수정을 하였다. 수정과정은 문항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활영역의 차원과 평등성의 질의 차원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었다. 수정된 문항은 다시 초등학교 4학년 3명에게 이해도 확인을 거쳤다. 문항 이해도 검사에서 이해도가 80%가 넘는 문항 중에서 8번(81%), 11번(89%), 15번(81%), 17(92%)번도 초등학교생에게 적합한 용어(예, 사귀는 남자 => 남자 친구)로 수정하였다.

**국문학 전공자의 문항 검토 및 수정:** 국문학 전공자(박사과정)의 검토에서는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생략된 부분(목적어)을 복원하였고 좀 더 이해하기 편한 자연스러운 어순으로 수정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문항 최종 확정:** 이해도 검사와 면담을 통한 이해도 파악과 수정 과정을 반복한 후 국문학 전공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그룹은 수정된 문항과 본래의 문항과의 일치성과 이해도에 대해 평정한 후 의견이

없는 선에서 최종문항을 도출하였다. 표3에 제시된 바 20문항 중에서 1, 2, 3, 4, 5, 6, 7, 8, 11, 14, 15, 16, 17, 18, 19번의 총 15문항이 최종 수정되었다.

### 구인타당도

**확인적 요인분석:**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의 이론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4개 생활영역으로 구분한 차원을 따라서 4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경쟁모형은 기존의 성역할 태도 관련 검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논리에 의해 1요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Chung(2001)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태도 검사(AWS)의 경우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 모형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King과 King(1990)도 5개의 생활영역으로 구성된 성역할 평등주의 척도(SRES-KK) 25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1차원의 구조를 보고 하였다. 대부분의 성역할 태도 관련 척도들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단일요인으로 밝혀지는 이유는 요인분석이 관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또는 공변관계를 이용하여 상관이 높은 공통된 몇 개의 변수들이 가설적 변수(요인)로 설명되기 때문이다(이순목, 1991). 따라서 AWS, SRES-KK 모두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차원)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높은 상관으로 인하여 단일 요인으로 추출되는 것 같다.

하지만 Scandura, Tejada 그리고 Lankau(1995)는 SRES의 단축검사인 SRES-KK 25문항으로 대학생과 경영자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요인 모형과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5개의 하

위 척도의 5요인 모형은 경영자 집단에서는 두 모형 다 지지되지 않았다. 경영자 집단에서 1요인 모형은 TLI=.76, 5요인 모형은 TLI=.76이었다. 반면 대학생 집단에서는 두 모형이 모두 좋은 적합도 지수로 지지되었다. 대학생 집단에서 1요인 모형은 TLI=.90, 5요인 모형은 TLI=.93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 영역 등의 구분이 물론 구성개념적인 요인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별도로 구분이 되는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차원이나 요인의 모형은 실시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은 KGES-A의 개발 과정에서 중,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 구인에 대한 개념 조사를 하였다. 응답 결과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등의 영역으로 정리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경우 남녀평등한 사람의 사고나 행동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생활영역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양희와 정경아(1999)의 성인용 남녀평등의식 검사에서는 생활영역 차원과 평등성의 질적인 특성 차원의 매트릭스 개념으로 남녀평등의식 구인을 개념화하였다. 이와 비교해서 청소년의 경우는 삶의 영역이 제한되어 다양한 성차별에 노출될 기회 부족하고 평등정책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성의 질과 관련한 문항을 넣기는 하되 별도의 차원으로 설정하지는 않기로 하였

다고 설명하고 있다. KGES-A의 60문항 전체검사의 각 하위척도별 요인분석에서 찾아진 요인의 경우 성인용과 비교해서 그 수가 적었다. 가정생활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은 ‘전통적이며 가부장적 가족관’과 ‘성평등 가족관’으로 2개였고 직업생활척도는 ‘성차별 직업역할 및 관계’와 ‘성평등한 직업관’으로 2개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경우 남녀평등의식 구인이 다양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가정생활에서는 가정이란 영역의 차원 직업생활에서는 직업이란 영역의 차원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도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남녀평등의식의 구성개념에 대한 이해와 구조가 성인과는 다른 것 같다.

KGES-A에서 이해도 수준을 변화시킨 KGES-AC는 4개 생활영역을 남녀평등의식의 구성개념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론적 구조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4개 생활영역을 차원으로 보고 4요인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KGES-AC의 알려진 이론적 구조 모형이 실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이 적합한 방식으로 선택되었다. 경쟁모형은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김양희와 이수연(2002)의 연구에서 하위척도들 간의 높은 상관이나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1요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4요인 모형에서의 요인의 개념은 구조나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표 4. KGES-AC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TLI	RMSEA(90%신뢰구간)
4요인 모형(연구모형)	584.685	164	.911	.052(.047-.056)
1요인 모형(경쟁모형)	612.640	170	.909	.052(.048-.05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되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특정 모형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chi^2$  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chi^2$  차이 값도 역시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0, 2001; Hong et. al., 2003, 재인용)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 (NNFI)를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CFI는 표본의 영향에 덜 민감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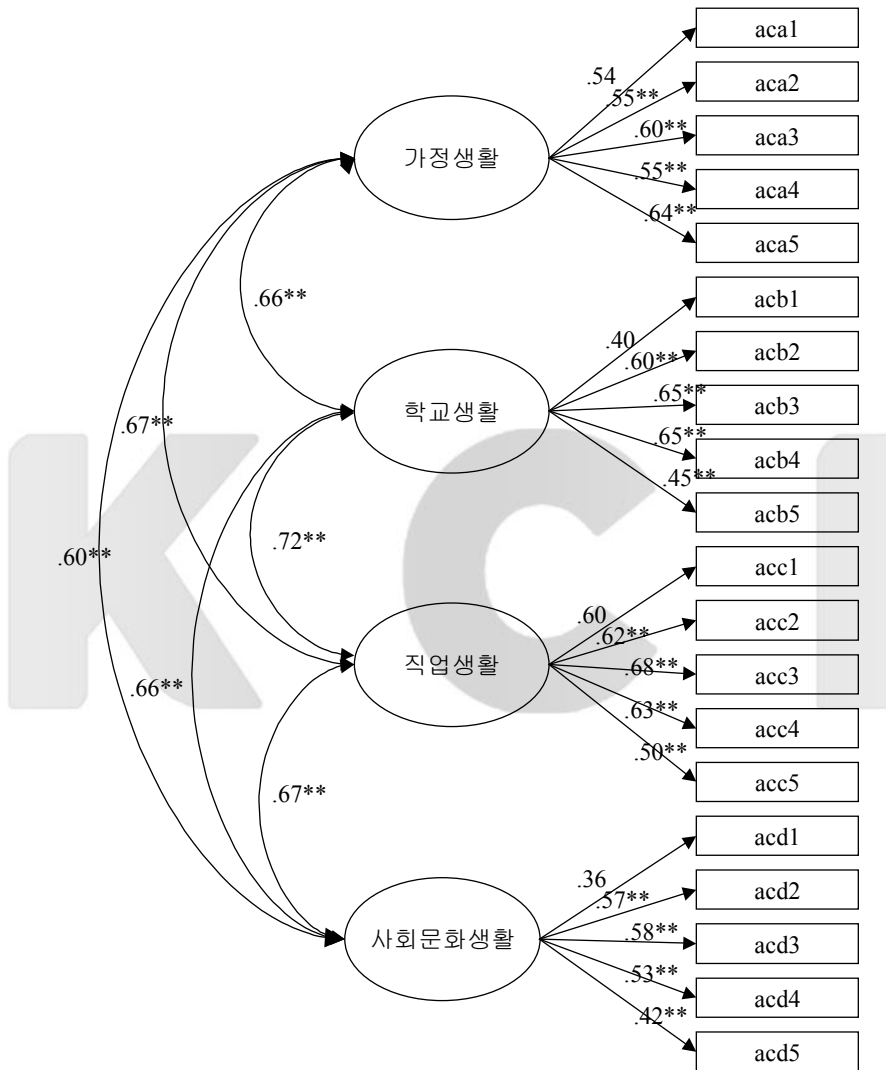


그림 1. KGES-AC의 확인된 경로모형(표준화 계수)

주 \*\*  $p < .01$

각 요인별 첫 번째 문항은 1로 고정되어서 유의미성이 검증될 수 없다.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모형을 비교해서 그 중 하나의 모형을 선택할 때, 비교하는 모형의 자유도가 서로 다를 때는 CFI를 이용하지 않고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표본의 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TLI(NNFI)를 이용해야 한다(홍세희, 2000).

연구모형인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된 대로 TLI가 .911, RMSEA가 .052로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TLI가 .909, RMSEA가 .052로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RMSEA는 절대적 지수로 보통 .06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상당히 좋은 적합도로 보고 .08 이하인 경우에 괜찮은 적합도로 판정된다. 또한 TLI(NNFI)도 .90 또는 .95 이상이 좋은 적합도 지수로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홍세희, 2001; Hong, Malik & Lee, 2003, 재인용).

여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4요인 모형과 1요인 모형 모두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간명성, 요인간의 상관 등을 고려한다면 1요인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4요인 모형이 간명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적합도 지수가 1요인 모형보다 낮지 않다는 점,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검증해 준다는 점,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내용을 잘 반영해 준다는 점 그리고 척도를 활용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분을 통해 아동

과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개 생활영역 차원의 4요인 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다집단 동등성 검증:** 학교급별로 4요인 모형의 이론적 구조의 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산출한 결과 RMSEA가 초등학교는 .065, 중학교는 .054, 고등학교는 .056으로 3집단 모두에서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5 참고). 이를 확인한 다음 학교급간의 형태 동일성, 측정 동일성, 척도(질편)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은 집단 간 요인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고자 하는 경우에 쓰는 방법으로(홍세희, 2001),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등 세 집단 간 이론적 구조가 같은지 검증하고 초·중·고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고자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학교급에서 4요인 모형으로 초·중·고등학교 자료를 대상으로 어떠한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초모형 분석을 통해 형태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표 6과 같이 RMSEA가 .033으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고 TLI도 .989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90% 신뢰구간이 좁게 나오으로써 추정된 RMSEA 값이 안정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태동일성이 검증되었다.

형태동일성 검증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이 검

표 5. 학교급별 KGES-AC의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

4요인 모형	$\chi^2$	df	TLI	CFI	RMSEA(90%신뢰구간)
초등학교	319.488	164	.808	.834	.065(.055-.076)
중 학교	341.509	164	.904	.918	.054(.046-.062)
고등학교	353.567	164	.912	.924	.056(.048-.064)

표 6. 다집단(초·중·고)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chi^2$	df	TLI	RMSEA(90%신뢰구간)
모형1: 형태동일성	1014.716	492	.989	.033(.030-.036)
모형2: 측정동일성	1076.405	524	.989	.033(.030-.036)
모형3: 측정 및 척도(절편)동일성	1331.339	564	.985	.038(.035-.040)
모형4: 측정 및 부분 척도동일성	102.074	532	.988	.033(.031-.036)
모형5: 측정, 부분 척도 및 요인분산동일성	1115.558	540	.989	.033(.031-.036)

증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세 집단의 요인계수가 같다고 가정한 모형2와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1과의  $\chi^2$  차이 검증을 하였다. 두 모형간  $\chi^2$  차이값은 61.689, 자유도의 차이값은 32로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데에  $\chi^2$  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1; Hong et. al., 2003, 재인용). RMSEA와 TLI(NNFI)를 고려하였다. 모형1과 모형2에서 동일한 값을 보여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또한 90%의 신뢰구간이 좁게 나오므로써 추정된 RMSEA가 안정되게 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뢰구간의 상한값도 .05 보다 낮아서 안정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본 척도의 문항들이 초·중·고등학생 세 집단에게 동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척도가 세 집단을 대상으로 공용척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학교급간 구인 동등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요인계수가 같다고 제약을 가한 모형2와 각 측정변수의 절편까지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3간에 모형의 적합도가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두 모형간  $\chi^2$  차이값은 254.934, 자유도의 차이값은 40으로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MSEA와 TLI(NNFI)도 나빠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측정변수의 절편이 다른지를 확인하였고 측정변수들의 동일화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완전히 제약을 가한 척도동일성 모형3에 비해서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부분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분 측정동일성 모형인 모형4와 척도동일성 모형2간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  차이값이 25.669, 자유도가 8로 두 모형의 차이가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chi^2$  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chi^2$  차이값도 역시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1; Hong et. al., 2003, 재인용) RMSEA와 TLI(NNFI)를 고려하였다. CFI는 표본의 영향에 덜 민감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으므로 제외시켰다(홍세희, 2000). 모형2와 모형4의 RMSEA와 TLI(NNFI) 값이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여 척도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확보된 부분 척도 동일성을 바탕으로 잠재평균 비교를 하였다.

**학교급간 잠재평균 분석:** 척도동일성까지 확보되면 척도의 잠재평균이 학교급에 따라

표 7. KGES-AC 학교급간 잠재평균 차이분석

요 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d (초, 중)	d (중, 고)	d (초, 고)
가 정 생 활	0	.073	.136	.20	.17	.37*
학 교 생 활	0	.024	.132	.08	.35*	.43*
직 업 생 활	0	-.055	.100	.12	.34*	.22
사회문화생활	0	-.073	-.013	.24	.20	.04

주 : \*은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미

다른지에 대한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초등학교를 참조집단으로 각 잠재변수의 평균을 0으로 설정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비교와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비교를 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비교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산출된 잠재평균의 차이와 그 효과크기가 표 7에 제시되었다.

산출된 잠재평균의 차이값이 어느 정도로 큰 차이인지 파악하기 위해 Cohen의 효과크기( $d$ )를 구하였다. 효과크기를 구할 때 집단간 공통 표준 편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집단간 요인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요인 분산 동일성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표 6에서 제시된 것처럼 측정 및 부분 척도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4와 각 요인분산이 동일하다는 제약까지 가한 모형5와의 차이값이 13.484, 자유도가 8로 두 모형의 차이가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chi^2$  차이값은 표집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홍세희, 2001; Hong et. al., 2003, 재인용) RMSEA와 TLI(NNFI)를 고려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모형4와 모형5의 RMSEA와 TLI(NNFI) 값이 거의 일치하는 값을 보여 요인분산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요인분산 동일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효과크기의 값은 공통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Cohen(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효

과크기의 값이 .3은 작은 수준, .5는 중간 수준, .8은 큰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집단간 잠재평균의 차이가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교에서는 없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비교에서는 학교생활 차원과 직업생활 차원의 두 차원(하위척도)에서 남녀평등의식의 잠재평균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를 효과크기로 해석하면 두 차원 모두 잠재평균의 차이의 효과크기가 낮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비교에서는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두 차원에서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잠재평균이 초등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정생활 차원의 잠재평균 차이는 효과크기가 낮은 정도이고 학교생활 차원은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성역할정체감과의 변별타당도**

성역할정체감과 본 검사에서 재고 있는 남녀평등의식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두 검사가 구별되는 검사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한국형성역할검사 수정(KSRI-R)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각각 2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으로 성역할정체감을 구분하였다.

표 8. KGES-AC와 KSRI\_R 사이의 상관관계(초·중·고 전체)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남성성							
여성성	.525						
양성성	.814	.830					
가정생활	.051	.099	.063				
학교생활	.058	.098	.067	.663			
직업생활	.036	.102	.056	.666	.715		
사회문화생활	.030	.050	.012	.601	.657	.672	
전체척도	.050	.101	.057	.843	.873	.893	.847

표 9. KGES-AC와 자기-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	전체척도
자기존중감(초등학생)	.144*	.203*	.137*	.103	.175*
자기존중감(중학생)	.080	.108*	.068	.061	.091
자기존중감(고등학생)	.208**	.175**	.131*	.176**	.196**
자기존중감(전체)	.143**	.156**	.109**	.110**	.149**

주 \*  $p < .05$ , \*\*  $p < .01$

남성성, 여성성은 각 해당하는 20문항의 총점을 사용하고 양성성은 한 개인의 양성성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므로 양성성 점수를 Kalin (1979)의 양성성-점수산출 방식:  $[(남성성점수 + 여성성점수) - |(남성성점수 - 여성성점수)|] / 2$ ;에 따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남성성과 KGES-AC 하위차원 및 전체 척도와의 상관은 .030-.058, 여성성과 KGES-AC 하위차원 및 전체 척도와의 상관은 .050-.102, 그리고 양성성과 KGES-AC 하위차원 및 전체 척도와의 상관은 .012-.067로 모두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표 8).

초·중·고 학교 급에 따라 관련성은 다를 것으로 예측되어 이를 검증하였다.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예상대로 관련이 있는 변수임이 밝혀졌다(표 9). 그리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도 함께 높은 것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두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대체적으로 없었고 학교생활 차원에서만 아주 낮은 관련성이 밝혀졌다.

## 논 의

###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아동과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은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KGES-A) 단축형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화하였다.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C)의 신뢰도 검증으로 Cronbach  $\alpha$ 를 보았고 타당도 검증은 내용타당도,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학교급간에 따라 KGES-AC의 생활영역 차원별로 평균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평균분석을 하였다.

KGES-AC의 각 생활영역 차원의 내적일관성인 Cronbach  $\alpha$ 는 가정생활 .702, 학교생활 .680, 직업생활 .737, 그리고 사회문화생활 .619로 적절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의 KGES-A의 단축형에 대한 내적일관성 결과(.66-.76)와 비교할 때, 지수의 순위가 동일하고 그 수치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 그룹의 문항검토와 이해도 검사를 바탕으로 국문학 전공자의 검토를 거쳐 문항 수정이 이루어졌다.

구인타당도 검증으로는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총 964명에게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확인하고자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영역 차원을 요인으로 잠정적으로 규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인 4요인 모형과 경쟁모형인 1요인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는 .911, RMSEA는 .052로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고 1요인 모형도 TLI가 .909, RMSEA가 .052로 모두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로서 두 모형 다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형으로 판명되었다. 다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다면 1요인 모형이 더 설득력이 있으나 4요인 모형이 적합도와 간명성을 모두 고려한 적합도 지수에

서 좋은 지수를 보이고 있고 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검증해 준다는 점,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내용을 잘 반영해 준다는 점 그리고 척도를 활용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분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에 대해서 보다 많은 설명을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4요인 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KGES-AC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우선, 각 학교급간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학교급에 4요인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중·고 모두에서 4요인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동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 형태(구조)동일성과 측정동일성, 척도동일성이 확보되어 초, 중, 고등학생들 간에 학교급간 구인동등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통해 KGES-AC가 초·중·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척도임이 밝혀졌다.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KSRI-R의 하위척도들과 KGES-AC 생활영역 차원 및 전체 척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김양희, 이수연, 2002; Archer, 1989; Galambos, 1985; King & King, 1993)에서 밝혀진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성격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도구인 KSRI-R와 남녀의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인 KGES-AC는 서로 다른 변별적인 도구가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예상대로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은 관련이 있는 변수임이 밝혀졌

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도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alambos 등(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은 여성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여학생이 낮은 자기존중감을 갖는다고 보고 하면서 사회에서 남성적 가치에 더 보상적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자기-존중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고 능력있는 인간인가에 대한 스스로와 타인의 평가를 얼마나 수용하며 존경하느냐 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한편, 자기존중감과 성역할 정체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양성적이었으며 양성성일수록 자기-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유성경, 임영선, 2005; 이숙, 최진아, 1991).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존중감은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 성역할 특성(정체감)이 양성적인 경우에 자기-존중감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남녀평등의식과 자기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대체적으로 없었고 학교생활 차원에서만 상대적으로 낮은 관련성이 밝혀졌다. 이는 남녀평등의식 또는 자기-존중감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그 변화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종단연구를 통해 그 발달과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겠

다. KGES-AC는 신뢰도검증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KGES-AC의 학교급간(다집단) 구인동등성 검증을 바탕으로 척도동일성까지 확보된 후 잠

재평균분석을 하였다. 초등학생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가정생활 차원은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남녀평등의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 차원도 학교급이 올라가면서 남녀평등의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업생활 차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감소되다가 고등학교에서 다시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발견되었다. 사회문화생활 차원은 초·중·고 세 급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차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교생활 차원과 직업생활 차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발견됨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인 후기 아동기에 형성된 남녀평등의식은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이 되어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Signorella 등(1993)의 연구를 보면 남녀평등의식의 인지적 요소인 성역할고정관념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정점을 이룬 다음 고학년이 되면서 낮아지는데 그 이유를 인지능력의 향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경우 나이가 많은 아동은 나이가 어린 아동에 비해 성역할 태도가 더 자유롭다(Kulik, 2002)는 연구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은 남녀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교생활 차원과 직업생활차원에서 남녀평등의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면 남녀평등의식의 발달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넘어가는 시

기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높다(Urberg, 1979)거나 성차별적 태도가 청소년기에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Benson & Vincent, 1980)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청소년기 안에서도 구체적인 시기에 따라서 성역할 태도가 변화, 발달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초, 중, 고등학생 사이에 가정생활, 그리고 특히 학교생활, 직업생활에서는 남녀평등의식이 점진적으로 높아가는 반면 사회문화생활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은 학생들의 경험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기 청소년기 이후에 서서히 생활영역이 확대되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양희와 이수연(2002)은 60문항 KGES-A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네가지 하위척도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영역과 직업영역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잠재평균분석(Latent Mean Analysis)은 잠재 변수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변량분석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Hong, Malik, & Lee, 2003). 잠재변수란 이론적, 추상적 개념으로 직접 관측이 가능하지 않은 변수로서 이론적 변수들이 이에 해당한다. 잠재변수는 측정하려는 개념 그 자체이므로 측정오차가 없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해서 구한 잠재변수간의 공변량 계수나 회귀계수 값은 측정오차가 통제되기 때문에 측정변수를 바탕으로 구한

계수 값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2001).

KGES-AC의 잠재평균분석과 자기-존중감과의 상관연구를 통해 전체 척도 내에서 하위척도인 생활영역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생활영역으로 나뉘어진 하위척도별로 척도가 사용되는 것이 유용함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남녀평등의식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인의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직업적 목표 그리고 친구관계, 기억, 의사결정, 흥미와 기술의 발달 등 매우 넓은 영역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Bigle, 1997)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 발달 또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연령을 확대하여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남녀평등의식의 변화와 발달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KGES-AC 척도의 신뢰도 검증에서 내적 합치도만을 고려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검증 과정을 거쳐 척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KGES-AC 척도의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의 이해도 수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검사가 부적당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앞서서도 지적 했듯이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밝히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의 발달과 변화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이, 능력 변인, 매개변인들, 그리고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김양희, 이수연 (2002).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 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pp. 250-255).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 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27, 153-182.
- 김영희 (1995).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 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연구*, 183-213.
- 유성경, 임영선 (2005). 한국형 성역할검사 수정 (KSRI-R) 척도 개발. 미발표
- 이숙, 최진아 (1991). 성, SES에 따른 청소년의 성역할 특성 및 자아개념. *가정과학연구*, 1, 21-35.
- 이순목 (1991).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1.
- 한건환, 장휘숙, 안권순 (2004).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 대처 방식 및 문제행동에서 자기 존중감의 역할. *청소년학 연구*, 11(3), 385-40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자료집*.
- Archer, J.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measures: A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73-184.
- Ashmore, R. D., Del Boca, K. F., & Bilder, S. M. (1995).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Gender Attitude Inventory, A structured inventory to assess multiple dimensions of gender attitudes. *Sex Roles*, 32, 753-785.
- Beere, C. A., King, D. W., & King, L. A. (1984).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A measure of attitudes toward equality between the sexes. *Sex Roles*, 10, 563-576.
- Bem, S. L. (1993). *The lenses of gender: Transforming the debate on sexual inequal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enson, P. L., & Vincent, S. (198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xist Attitudes Toward Women Scale(SATW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5, 276-291.
- Berkel, L. V. (2004).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with African Americans, *Sex Roles*, 50, 737-742.
- Bigle, R. S. (1997).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the measurement of children's sex typing.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53-69.
-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Some cross-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8, 512-526.
- Brogan, D., & Kutner, N. G. (1976). Measuring

- sex-role orientation;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2-40.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Y. (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102.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ok, E. P. (1985). A framework for sex role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4, 253-258.
- Chung, J. (2001). An examination of potential public accounting recruits' attitudes toward woman. *British Accounting Review*, 33, 307-331.
- Dambrot, F. H., Papp, M. E., & Whitmore, C. (1984). The sex-role attitudes of three generations of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469-473.
- Fischer, J., & Narus, L. (1981). Sex role development in late adolescence and adulthood, *Sex Roles*, 7, 97-106.
- Galambos, N. L., Petersen, A. C., Richards, M., & Gitelson, I. B. (1985).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 (AWSA) :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Sex Roles*, 13, 343-356.
- Harris, A. C. (1994). Ethnicity as a determinant of sex role identity: A replication study of item selection for the Bem Sex Role Inventory, *Sex Roles*, 31, 241-273.
- Helmreich, R. L., Spence, J. T. & Gibson, R. H. (1982). Sex-role attitudes: 1972-1980.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 656-663.
- Hong, S., Malik, M. L., & Lee, M.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45.
- Kalin, R. (1979). Method for scoring androgyny as a continuous variable, *Psychological Reports*, 44, 1205-1206.
- King, L. A., & King, D. W. (1990). Sex-role egalitarianism and androgyny: Discriminating evidence, *Psychological Reports*, 67, 1129-1130.
- King, L. A., & King, D. W. (1993).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manual*, Port Huron, MI : Sigma Assessment Systems, Inc.
- King, L. A., & King, D. W. (1997).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Develop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71-87.
- Loo, R. & Thorpe, K. (1998). Attitudes toward women's roles in society: a replication after 20 years, *Sex Roles*, 39, 903-912.
- Martin, C. L., & Halverson, C. (1981). A schematic processing model of sex typing and stereotyping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1119-1134.
- McGhee, M. R. (2001). Assessi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SRES) with African Americans, *Sex Roles*, 45, 859-866.
- McHugh, M. C., & Frieze, I. H. (1997). The measurement of gender-role attitudes: a review and commentary, *Psychology of Women*

- Quarterly*, 21, 1-16.
- Nunnally, J. O.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744-758.
- Scandura, T. A., Tejeda, M. J., & Lankau, M. J. (1995). An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the Sex-Role Egalitarianism Scale (SRES-KK)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rocedur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832-840.
- Signorella, M. L., Bigler, R. S., & Liben, L. S. (1993).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hildren's gender schemata about others: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13, 147-183.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72). *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An objective instrument to measure the attitudes toward the rights and roles of women in contemporary society*. JSAS: Catalog of Selected.
- Spence, J. T. (1993) Gender-related traits and gender ideology: Evidence for a multifactori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24-635.
- Swim, J. K., & Cohen, L. L. (1997), "Overt, covert, and subtle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103-118
- Twenge, J. M. (1997), "Attitudes toward women, 1970~1995 : A meta-analysi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35-51.
- Urberg, K. A. (1979), Sex role conceptualization in adolescents and adul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90-92.

1 차원고접수 : 200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5. 11. 01  
최종게재결정 : 2005. 12. 02

## Validation of the 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and Children

**Jung Ha**

**Ewha Womans University**

**Se-Hee Hong**

**Younsei University**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GES(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with the Korean adolescents and children. the KGES-AC was revised from the KGES-A(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 to extent its use to the elementary students.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964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Ki. The internal consistency of KGES-AC was proved to be acceptable. The validity of the KGES-AC was verified by item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KGES-AC consisted of four-factor structure. The four-factor structure of the KGES-AC fit quite well with the elementary, the middle, and the high school students sample. Given the adequate configural, both metric and scalar invariance was tested and supported, which allowed the examination of school differences at the latent mean level. The latent mea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gender egalitarianis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t the three factors(home, school, work subscales) of the four facto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society and culture subscales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children, adolescents, gender egalitarianism*